

[AA03]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일본의 키토라고분 성수도

이용복  
서울교육대학교

현재 경복궁에 경내에 있는 고궁박물관에는 조선 태조 4년(1395년)에 제작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각석본이 전시되고 있다. 이 각석에 기록된 내용과 제작을 주도했던 권근의 양촌집 내용에 의하면 이 천문도의 원본은 고구려 시대 평양성에 있었던 천문도의 인본을 바탕으로 돌에 새겼다고 한다.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별의 위치가 세차운동에 의해 변한 것을 당시의 천문학자가 관측을 바탕으로 별들의 위치를 바로 잡아서 각석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천문도가 고구려에서 사용되던 별자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하여는 알길이 없었다. 다만 현재 중국의 고구려 옛 영토와 평양 일대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별자리로 추정할 뿐이다. 고분 벽화에 그려진 별자리는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어 천 하늘에 대한 별자리는 추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 1983년에 일본의 고도인 나라(奈良) 근처에서 키토라 고분이 발견되었다. 이 고분을 1983년과 1998년 2차에 걸쳐 무덤 내부에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조사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무덤은 7 - 8세기에 만들어지고 고구려 양식과 같음이 밝혀졌다. 내부의 네 벽면에서 사신도가 확인되었고, 특히 천정에는 많은 별들을 묘사한 천문도를 발견했다. 이 천문도를 분석한 결과 별의 관측지가 위도가 북위 39도 근처로서 당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별자리의 모양도 중국의 천문도와 달리 조선의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본 연구에서는 키토라 고분의 천정 별자리를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천상열차분야지도와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별자리로서 팔곡(八穀), 익수(翼宿), 호시(弧矢), 천직(天稷), 기부(器府), 우림군(羽林軍) 등 다양한 별자리의 모양과 춘분점과 추분점 근처의 별자리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키토라 천문도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같은 계열의 천문도를 모본으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의 천상열차분야지도는 고구려 시대부터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까지 이어져 내려왔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이 천문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적 전통이 고구려, 신라, 및 백제에 근거하고 있음과 연결된다.

[AA04] Report on astronomical materials listed in the book of  
Bibliographie Coréenne

Ki-Won Lee<sup>1,3</sup>, Hong-Jin Yang<sup>2</sup>, Myeong-Gu Park<sup>1</sup>

<sup>1</sup>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up>2</sup>Korea Astronomy and Space Science Institute, <sup>3</sup>ARCSEC

'Bibliographie Coréenne' is a catalogue book of ancient Korean literatures written by Maurice Courant (1865 ~ 1935). He worked as an interpreter of the first French Ambassador to Korea (Collin de Plancy) and published three volumes ranging from 1894 to 1896 and the supplement in 1901. He classified ancient books into nine divisions (部) and thirty six classes (類), and compiled total 3,821 books including astronomical ones with information of possessional place, bibliographical note and so forth. Although this book is one of representative Bibles in the field of Korean bibliography and includes astronomical materials, it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to the astronomical society as well as to the public. The book contains many astronomical materials such as Cheon-Mun-You-Cho (天文類抄), Si-Heon-Seo (時憲書), and Cheon-Sang-Yeol-Cha-Bun-Ya-Ji-Do (天象列次分野之圖). Of 3,821 catalogues, we found about 56 items (種) relating to astronomy or astrology. We verified that most of them are located in the Kyujanggak Royal Library (奎章閣), and well known to our society. We also found an unknown astronomical chart, Hon-Cheon-Chong-Seong-Yeol-Cha-Bun-Ya-Ji-Do (渾天總星列次分野之圖, #2367; manuscript), which is annotated as preserved in the Paris Observatory, but seems not extant anymore there.